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Abridged form in the Title of Buddhist Literature

禹 秦 雄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緒 言 | 4.1 축약의 방법 |
| 2.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 | 4.2 음절수의 변화 |
| 3. 책판목록의 기록과 현전본과의 비교 | 5. 結 言 |
| 4. 서명축약 표기의 분석 | <참고문헌>
[부록] |

< 초 록 >

본고는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명 축약의 방법에는 음절 축약, 내용 축약, 저자명 축약이 있으며, 대부분의 불교문헌이 사용하는 서명 축약은 음절 축약이다.
2. 표제의 음절수는 3-4음절로 축약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3. 판심제는 표제보다 원서명이 더 간단하게 축약되어 있으며, 원서명의 長短에 관계없이 4음절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조사된 문헌 중 약 97%에 해당한다.
4. 표제보다 판심제가 원서명이 더 축약되는 이유는 목판을 판각할 때 판심부분의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要語: 불교문헌, 서명축약, 서명표기, 표제, 판심제, 음절축약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3년 12월 10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se the various abbreviation marking of title in Buddhist literature. According to the study, we could know the facts as follows ;

1. Types of title abbreviation are like syllable omission, contents abbreviation, author name abbreviation, but mostly was syllable omission preferred.
2. The syllable in the title of cover page was abbreviated to 3 to 4 syllable whose trends is up to 70% of all.
3. Title at the center of pages was more shorter form than the cover title, its syllable mainly shorter than 4 letters whose share was 97% of all.
4. Shorter form in the title at the center page might come from limited space of engraving spot at Pansim(版心).

Key words: Buddhist literature, Abbreviation of title, Title marking, Cover Title, Title at the center of text in wood block. Syllable abbreviation

1. 緒 言

문자의 표기는 계속해서 간편함을 추구하여 왔다. 긴 문장이나 단어, 명칭의 축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축약된 형태의 표기는 처음에는 편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축약 표기가 점차 통용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특히 불교의 여러 가지 용어 중 書名은 축약 형태의 표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 불교 문헌의 경우 축약된 서명이 더 일반화된 것이 많다.

서명의 축약 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의 편찬·간행과 관련된 기록, 冊板目錄, 書目, 引用篇目, 日記, 發願文 등에 표기된 서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또한 전해지는 문헌에 표기되어 있는 版心題나 表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문헌에 표기된 서명의 형태는 表題, 卷首題, 卷末題, 版心題, 書耳題, 書根題 등이 있다. 이 중 권수제가 가장 명확한 서명이며, 이것이 곧 원서명이다. 그러나 고문헌을 조사하다 보면 표지나 권수제가 결락되어 원서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이때 관심제만으로 서명의 확인이 가능하나 관심제의 표기는 축약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원서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불교 문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서명의 축약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책판목록에 축약 표기된 책판명과 현전 문헌과의 확인을 통하여 축약된 서명의 원서명을 확인하고, 아울러 현전 고문헌의 表題와 版心題 등을 조사하여 대체적인 서명 축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서명 축약의 이유와 축약의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

조선시대의 목록 중 책판목록에는 서명의 축약 표기가 많이 나타나 있다.

책판목록에는 불교문헌의 서명이 표기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으나 『冊板置簿冊』,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各道冊板目錄』 등의 목록에 수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 『冊板置簿冊』(1740년경)

경상도, 전라도 등에 보관되었던 책판목록이다. 불교책판명은昌平 소장의 『楞嚴經』 등 22종이 나타나며, 책판명은 다음과 같이 모두 3-4음절로 축약 표기되어 있다. 현전본의 간기를 확인해보면 지역명 중 朔寧은 朔寧 龍腹寺, 昌平은 龍興寺에 소장된 책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제3장에 언급)

昌平	楞嚴經
康津	妙法華經
同福	金剛經
咸陽	結手文 / 圓覺經 / 雲水文 / 預修文 / 諸般文 / 志盤文
京畿道 朔寧	華岩經 / 拈訟經 / 法華經 / 盤惹經 / 世尊行蹟 / 清虛集 / 鞭羊集 / 倚岩集 / 魚山集 / 龜鑑集 / 恩重經 / 楞加經 / 中禮文

2.2 『諸道冊板錄』(1750년경)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등에 보관되었던 책판목록이다. 창평과 함경감영에 소장된 불교책판명이 수록되었으며, 이 중 함경감영 책판은 『冊板置簿冊』의 朔寧 소장 책판 목록과 거의 일치한다.

昌平	楞嚴經
咸鏡監營	華嚴經 / 法華經 / 盤若經 / 世尊行蹟 / 清虛集 / 鞭羊集 / 倚巖集 / 魚山集 / 龜鑑集 / 恩重經 / 楞加經 / 中禮文

2.3 完營册板目錄(1759年頃)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등의 감영 등에 보관되었던 책판목록으로, 창평, 청주, 함경감영에 소장된 불교책판명이 수록되었다.

昌平 楞嚴經
清州 金剛經
咸鏡道營 華岩經 / 法華經 / 盤惹經 / 世尊行蹟 / 清虛集 / 鞭羊集 / 倚岩集
/ 魚山集 / 龜鑑集 / 恩重經 / 楞禮文

2.4 各道册板目錄(1778年頃)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등에 보관되었던 책판목록으로, 창평, 양주 성불사, 삭녕에 소장된 불교책판명이 수록되었다.

昌平 楞嚴經
楊州 成佛寺 釋氏源流, 七星經
朔寧 華岩經 / 拈頌經 / 法華經 / 圓覺經 / 般若經 / 恩重經 / 楞嚴經
/ 中禮文 / 結手文 / 雲水文 / 預修文 / 志磐文 / 諸般文 / 龜鑑 / 清虛集
/ 鞭羊集 / 倚岩集 / 魚山集

2.5 各道册板目錄(1840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등 7개도의 각 군에 보관되었던 책판목록이다. 북한, 화성부, 하동, 영변 지역에 소장된 불교책판명이 수록되었다.

北漢 梵音集 / 八陽經
華城府 恩重經 具解
河東 會玄記 / 緇門板 / 記信論 / 華嚴經

寧邊 (以下香山寺在) 華嚴經 / 圓覺經 / 法華經 / 楞嚴經 / 金剛經 / 蓮宗寶鑑 / 說話 / 傳燈錄 / 起信論 / 緇門 / 禪要 / 書狀 / 禪要都序 / 節要 / 龜鑑 / 初心 / 觀心經 / 梵網經 / 思重經 / 大彌陀經 / 小彌陀經 / 十王經 / 高王經 / 玉樞經 / 諸般冊 / 八陽經 / 延命經 / 地藏經 / 造像經

여기서 ‘寧邊’의 ‘香山寺在’라고 표기된 곳의 보관처는 묘향산에 위치한 대사찰인 普賢寺이다. 위의 목록에 있는 책판명과 현전 묘향산 보현사에서 開刊 또는 藏板한 기록이 있는 문헌들을 확인해보면, 보현사에서 보관된 책판명이 확인된다.¹⁾ 특히 이 목록에는 위와 같이 보관처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책판명의 표기가 모두 3 내지 4음절로 축약되어 있어 현전본과의 비교를 통해 원서명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상의 조선시대 책판목록에 수록된 책판명 중 동일한 책판으로 보이는 서명의 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동일한 책판명의 서명 표기는 명칭이 큰 변화가 없으나 「龜鑑集」은 龜鑑, 「楞加經」은 楞禮文, 「盤惹經」은 般若經, 「妙法華經」은 法華經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표 1> 같은 책판의 목록별 책판명 부어

冊板置簿冊 (1740年頃)	諸道冊板錄 (1750年頃)	完營冊板目錄 (1759年頃)	各道冊板目錄 (1778年頃)	各道冊板目錄 (1840年)
結手文	-	-	結手文	-
龜鑑集	龜鑑集	龜鑑集	龜鑑	龜鑑
-	-	-	-	記信論
金剛經	-	金剛經	-	金剛經
拈訟經	-	-	拈訟經	-
楞加經	楞加經	楞禮文	-	-
楞嚴經	楞嚴經	-	楞嚴經	楞嚴經
盤惹經	盤惹經	盤惹經	般若經	-
妙法華經, 法華經	法華經	法華經	法華經	法華經
世尊行蹟	世尊行蹟	世尊行蹟	-	-
魚山集	魚山集	魚山集	魚山集	-
預修文	-	-	預修文	-

1) 禹秦雄, “朝鮮時代 妙香山 普賢寺 刊行 版本考,” 『書誌學研究』 51輯(2012. 6), 193.

冊板置簿冊 (1740年頃)	諸道冊板錄 (1750年頃)	完營冊板目錄 (1759年頃)	各道冊板目錄 (1778年頃)	各道冊板目錄 (1840年)
雲水文	-	-	雲水文	-
圓覺經	-	-	圓覺經	圓覺經
恩重經	恩重經	-	恩重經	恩重經
倚岩集	倚岩集	倚岩集	倚岩集	-
諸般文	-	-	諸般文	-
中禮文	中禮文	-	中禮文	-
志盤文	-	-	志盤文	-
淸虛集	淸虛集	淸虛集	淸虛集	-
-	-	-	-	緇門板, 緇門
鞭羊集	鞭羊集	鞭羊集	鞭羊集	-
華岩經	華嚴經	-	華岩經	華嚴經

3. 책판목록의 기록과 현전본과의 비교

여기서는 책판목록에 수록된 普賢寺版과 龍腹寺版을 중심으로 목록에 표기된 책판명에서의 서명축약과 현전 판본의 원서명과 판심제를 살펴보았다.

3.1 「法華經」

「各道冊板目錄」(1840年)에 수록된 普賢寺版, 「冊板置簿冊」(1740年頃), 「各道冊板目錄」(1778年頃)에 수록된 용복사판의 축약표기는 모두 ‘法華經’이다. 현전 보현사판은 ‘康熙三十年(1691)辛未六月妙香山普賢寺開板’, 용복사판은 ‘崇禎五年壬申(1632)仲夏日朔寧水淸山龍腹寺開刊’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妙法蓮華經’, 판심제는 ‘法華經’이다.

3.2 「華嚴經」

「冊板置簿冊」(1740年頃), 「諸道冊板錄」(1750年頃), 「完營冊板目錄」(1759

年頃), 『各道冊板目錄』(1840年)에 책판명이 ‘華嚴經’ 또는 ‘華岩經’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원서명은 ‘大方廣佛華嚴經’이다.

3.3 「楞嚴經」

『各道冊板目錄』(1840年)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楞嚴經’이다. 보현사관의 현전본은 ‘康熙二十一年(1682)壬戌六月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開板’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판심제는 ‘楞’이다. 또 『冊板置簿冊』(1740年頃), 『諸道冊板錄』(1750年頃), 『各道冊板目錄』(1778年頃)에 표기된 용흥사관의 책판명은 ‘楞嚴經’이다. 현전본은 ‘康熙三十一年(1692)壬申六月日全羅道昌平地龍龜山龍興寺開刊’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판심제는 ‘楞’이다.

3.4 「圓覺經」

『各道冊板目錄』(1840年)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圓覺經’이고, 『各道冊板目錄』(1778年頃)의 용복사관의 책판명도 ‘圓覺經’이다.

현전 보현사관은 ‘康熙二十年(1681)辛酉臘月平安道寧邊府妙香山普賢寺開板’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판심제는 ‘圓覺經’이다. 현전 용복사관은 ‘崇禎七年甲戌(1634)仲夏京畿朔寧郡地水山龍腹寺開板’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판심제는 ‘圓覺經’이다.

3.5 「梵網經」

『各道冊板目錄』(1840年)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梵網經’이고, 현전본은 ‘歲舍癸亥(1683)八月日妙香山華藏庵入梓移佛普賢寺’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판심제는 ‘梵網經’이다.

3.6 「楞伽經」

「楞伽經」은 劉宋 443년에 求那跋陀羅가 번역한 것으로, 「册板置簿册」(1740年頃)과 「諸道册板錄」(1750年頃)의 朔寧에 ‘楞伽經’의 책판명이 있다. 현전본은 ‘崇禎九年丙子(1636)八月京畿道朔寧龍腹寺開板’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楞伽阿跋多羅寶經’이다.

3.7 「八陽經」

「八陽經」은 三藏法師(唐) 義淨이 漢譯한 것에 한글 음역을 달아 간행한 것으로, 「各道册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八陽經’이다. 현전본은 卷末에 ‘關西寧邊妙香山普賢寺鎮’의 기록이 있어 정확한 刊年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跋文에 의해 英祖 7年(1731)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²⁾ 원서명은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이며, 판심제는 ‘八陽經’이다.

3.8 「傳燈錄」

「傳燈錄」은 宋 高僧인 道源이 景德 1年(1004)에 지은 過去七佛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역대 祖師 등의 傳記를 수록한 것이다.

「各道册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傳燈錄’이며 현전본은 ‘康熙二十一年(1682)壬戌七月日平安道寧邊普賢寺開板’의 간기가 있다. 원서명은 ‘景德傳燈錄’, 版心題는 ‘傳燈錄’이다.

3.9 「禪要」

「禪要」는 宋末元初의 승려인 高峰 原妙(1238-1295)의 語錄 중에서 洪喬祖가

2) 禹秦雄, 175.

法語와 書信을 뽑아 엮은 책이다. 『各道冊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禪要」이며, 현전본의 원서명은 「高峰和尚禪要」이다.

보현사관을 제외한 기타 현전본의 表題는 「禪要」, 「高峰和尚禪要」, 版心題는 대부분이 「要」이다.³⁾

3.10 「緇門」

「緇門」은 元 智賢이 高僧 大德의 名文과 승려들이 공부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만한 역대 高僧들의 글을 뽑아 엮은 것이다. 「緇門」은 “먹물 옷을 입은 승려들, 또는 그들의 세계”라는 뜻으로 승려를 가리킨다.

『各道冊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緇門」이다. 현전본은 “嘉靖二十八年(1549)己酉四月晦日妙香山普賢寺留板”, “康熙二十一年(1682)平安道寧邊妙香山普賢寺開板”의 간기가 있는 2종의 판본이 전해지며, 원서명은 「緇門警訓」이다. 두 판본의 版心題는 「緇門」이며 표제는 「緇門警訓」이다.

『各道冊板目錄』(1840)에는 雙磎寺板도 보이는데 서명이 “緇門板”으로 되어 있으며, 쌍계사관 현전본은 「康熙乙亥(1695)晉州智異山雙磎寺開板」의 간기가 있다.

3.11 「書狀」

「書狀」은 宋 大慧 宋杲(1089-1163)의 語錄 30卷 중 卷25-30의 書狀 부분만 뽑아 엮은 것이다. 書狀이라 함은 宋杲가 42인의 문인들에게 보낸 書簡을 모은 것이다.

『各道冊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관의 책판명은 「書狀」이며, 현전본은 「萬曆元年(1573)癸酉季夏日妙香山普潤菴開板普賢寺開傳」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大慧普覺禪師書」이다.

3) 김영선, “『高峰和尚禪要』 판본고,” 書誌學研究 第14輯(1997).

3.12 「都序」

「都序」는 중국 華嚴宗의 第5祖인 宗密(780-841)이 禪教一致를 주창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자신이 저술한 101卷의 「禪源諸詮集」에 있는 총괄서문이다.

「各道冊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판의 서명은 ‘都序’이다. 현전 보현사판은 ‘乾隆五年(1740)庚申三月日平安道寧邊府妙香山普賢寺留鎮’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禪源諸詮集都序’이다. 현전본의 판심제는 대부분이 ‘都序’이나 解脫庵本(1574)의 경우 ‘禪源集’이다.

3.13 「龜鑑」

西山大師 休靜이 여러 경전과 역대 祖師들의 語錄 가운데 중요한 문구를 채택하여 편찬한 불교 수행의 기본 지침서가 되는 경전이다. 당시 불교개혁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各道冊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판의 책판명은 ‘龜鑑’이고, 「冊板置簿冊」(1740年頃), 「各道冊板目錄」(1778年頃)에 수록된 용복사판의 책판명은 ‘龜鑑集’이다. 현전 보현사판 2종⁴⁾의 원서명은 ‘禪家龜鑑’, 판심제는 ‘龜鑑’이다.

3.14 「節要」

「節要」는 중국 華嚴宗의 第5祖인 宗密이 지은 「法集別行錄」을 간략하게 하여 知訥이 高麗熙宗 5年(1209)에 저술한 참수행의 길을 제시한 책으로, 필독서로 널리 유통되었다. 「各道冊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판의 책판명은 ‘節要’이다

普賢寺版은 1612年版, 1680年版的 2종⁵⁾이며, 원서명은 ‘法集別行錄節要并入

4) 萬曆四十年(1612)壬子妙香山內院開板移鎮于普賢寺 / 雍正九年(1731)辛亥五月日留刊于香山普賢寺.

5) 萬曆四十年壬子妙香山內院開板移鎮于普賢寺, 康熙十九年庚申五月日妙香山普賢寺開刊.

私記' 판심제는 모두 '私記'이다.

3.15 「起信論」

인도의 馬鳴菩薩이 저술하고 眞諦三藏이 번역한 「大乘起信論」에 元曉가 주석한 것으로, 한국불교사상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경전이다.

「各道册板目錄」(1840)에 표기된 보현사판의 책판명은 '起信論'이다. 普賢寺版은 卷末에 '康熙二十一年(1682)壬戌三月平安道寧邊香山普賢開版'의 刊記가 있으며, 원서명은 '大乘起信論疏', 版心題는 '起信論'이다.

3.16 「結手文」

「結手文」은 水陸齋의 제반 의식 절차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印法을 설명하고 手印圖가 삽입되어 있는 책으로, 수록재 관련 의식서 중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책판목록상에는 「册板置簿册」(1740年頃)에 함양에 「各道册板目錄」(1778년경)에 朔寧에 「結手文」의 책판명이 있다. 현전본의 원서명은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이다.

3.17 「中禮文」

「中禮文」은 고려후기 竹菴이 편찬한 것으로, 수록재 관련서 중 「結手文」과 함께 많은 판본이 전해진다. 책판목록상에는 「册板置簿册」(1740年頃)의 경기도 삭녕, 「諸道册板錄」(1750년경)의 함경감영, 「各道册板目錄」(1778년경)의 朔寧에 「中禮文」의 책판명이 있으며, 원서명은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이다.

3.18 「仔夔文」

「仔夔文」의 원서명인 「天地冥陽水陸儀文」은 楊諤(北宋)이 편찬한 「天地冥陽

水陸儀文」과 仔夔(金)가 찬집한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은 모두 仔夔本을 저본으로 하였기에, ‘仔夔文’이라 불리어진다.

3.19 「志磐文」

「志磐文」南宋의 승려 志磐이 편찬한 수록재 관련 의식서이다.

책판목록상에는 「冊板置簿冊」(1740년頃)의 경기도 삭녕, 「諸道冊板錄」(1750년경)의 함경감영, 「各道冊板目錄」(1778년경)에 삭녕에 ‘志磐文’의 책판명이 있다. 현전 용복사판으로 ‘崇禎五年壬申京畿道朔寧郡水清山龍腹寺刊板’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판심제는 ‘志磐文’이다.

3.20 「魚山集」

「魚山集」은 조선후기의 승려인 智還이 水陸齋文 중 많이 사용되는 것만을 뽑아 모은 것이다. ‘魚山’은 梵唄와 같은 용어로 齋를 행할 때 사용하는 음악적 의식이다.

책판목록상에는 「冊板置簿冊」(1740년頃)의 경기도 삭녕, 「諸道冊板錄」(1750년경)의 咸鏡監營, 「各道冊板目錄」(1778년경)의 朔寧에 ‘魚山集’의 책판명이 있다.

현전 용복사판은 ‘崇禎五年壬申京畿道朔寧郡水清山龍腹寺刊板’의 간기가 있으며, 원서명은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이다.

3.21 「雲水文」

「雲水文」은 조선 중기 淸虛 休靜(1520-1604)이 「眞言勸供」, 「天地冥陽水陸齋儀」 등의 三壇獻供 부분을 뽑아서 편성한 책이다. 「各道冊板目錄」(1778년頃)의 경기도 삭녕에 ‘雲水文’의 책판명이 있다. 현전 삭녕 용복사판은 ‘崇禎五年壬申(1632)十月日京畿道朔寧水清山龍腹寺開板’의 刊記가 있으며 원서명은 「雲

水壇歌訶」이다.

3.22 기타

「冊板置簿冊」(1740年頃)의 朔寧에 있는 「拈頌集」의 경우 원서명은 「禪門拈頌集」이며, 현전 삭녕 용복사판의 간기는 '崇禎九年丙子元月日道峰山回龍寺開刊于移轉龍腹寺'의 간기가 있다.

「各道冊板目錄」(1840年)의 寧邊에 있는 「諸般冊」의 경우 원서명은 「諸般文」이며, 현전 삭녕 용복사판의 간기는 '雍正十一年仲春寧邊妙香山普賢寺大莊殿開板'의 간기가 있다.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預修文」은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근거하여 조선 중기 大興寺의 7대 禪宗인 松堂 大愚(1676-1763)가 纂하였으며, 現行 預修齋의 지침서가 되는 책이다. 「各道冊板目錄」(1778年頃) 삭녕 용복사에 「預修文」의 서명이 있으며, 현전 용복사판은 '崇禎五年壬申(1632)孟春日朔寧地水清山龍腹寺留板'의 간기가 있다.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은 「各道冊板目錄」(1840年)의 화성부와 영변, 「冊板置簿冊」(1740年頃)의 경기도 삭녕, 「完營冊板目錄」(1759년경)의 함경도영, 「各道冊板目錄」(1778年頃)의 삭녕에 모두 '恩重經'으로 되어 있다.

「北斗七星延命經」은 各道冊板目錄(1840年)에 '延命經'으로, 「地藏菩薩本願經」은 「各道冊板目錄」(1840年) '地藏經'으로 되어 있다.

책판목록 이외에 불교문헌의 서명 축약 표기가 있는 것으로는 王室發願本을 들 수 있다. 세종의 딸인 정의공주의 발원으로 1469년(睿宗 1)에 간행한 목판본인 「地藏經」의 跋文에는 정의공주의 남편 良孝公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施財하여 「水陸儀文」, 「結手文」, 「地藏經」을 판각한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1472年(成宗 3) 죽은 世祖·睿宗의 명복과 貞熹大王大妃·成宗·恭惠王后 등의 長壽를 빌기 위해 발원하여 金守溫이 발문을 쓴 기록에는 「法華經」, 「楞嚴經」, 「圓覺經」 등 주요 불교문헌의 간행기록에 서명이 축약 표기되어 있다.⁶⁾

4. 서명축약 표기의 분석

서명 축약표기는 현전본의 표제와 판심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⁷⁾ 이를 통해 서명 축약 표기의 방법과 음절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4.1 축약의 방법

4.1.1 음절 축약

음절 축약은 원서명의 음절 일부를 생략하여 축약 표기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흔한 축약표기의 방법으로 불교문헌 중 대부분은 서명 축약의 방법으로 음절 축약 표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와 같이 3-4음절 같은 원서명의 음절이 짧은 경우에는 원서명을 표제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도 있으나, 음절이 긴 경우에는 원서명 가운데 음절 일부를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몇 음절을 골라 축약 표기하였다. 불교 경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華嚴經』, 『法華經』, 『金剛經』, 『地藏經』 등 대승경전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모두 5음절 이상의 원서명 중 핵심적인 음절을 골라 3음절로 표기하였다.

<표 2> 음절 축약 표기 사례

원서명	축약	원서명	축약
請文	請文	大方廣佛華嚴經	華嚴經
禪家龜鑑	禪家龜鑑	華嚴懸談會玄記	會玄記/玄記
諸眞言集	眞言集	金剛般若波羅經	金剛經

6) 法華經, 楞嚴經, 圖覺經, 注華嚴經, 維摩經, 懺經四, 心經, 六經合部, 梵綱經, 地藏經, 藥師經, 恩重經, 法語, 永嘉集, 大藏一覽, 南明證道歌, 金剛川老解, 楞嚴義海, 眞實珠集, 中禮文, 志磐文, 結手文, 仔夔文, 法華三昧懺, 佛祖歷代通載, 禪門捻頌, 景德傳燈錄, 龍龕手鑑, 六道普說.

7) 東國大學校 圖書館. 東國大學校 建學100週年記念 古書目錄(서울: 東國大, 2006)에 수록된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한문본 불교문헌을 대상으로 함. 동일한 원서명 판본의 동일한 축약표기는 그 중 하나만 채택함.

원서명	축약	원서명	축약
釋門喪儀	釋門儀	禪源諸詮集都序	都序
藏乘法數	法數	釋迦如來行跡頌	如來行跡
作法龜鑑	作法龜鑑	天地冥陽水陸雜文	水陸雜文
施食儀文	施食儀文	楞伽阿跋多羅寶經	楞伽經
緇門警訓	緇門/緇門警訓	蒙山和尚六道普說	六道普說
日用作法	日用集	蒙山和尚法語略錄	法語解
現行西方經	現行經	佛說阿彌陀經要解	阿彌陀經/彌陀經
密教開刊集	密教集	禮念彌陀道場儀法	彌陀儀
僧家禮儀文	僧家禮	禪門祖師禮儀儀文	禪門祖師禮儀文/祖師禮儀
雲水壇歌詞	雲水文/雲水壇/雲水集	六祖大師法寶壇經	法寶壇經/壇經/六祖法寶壇經
刪補梵音集	梵音集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八陽經/天地八陽經/天地八陽神呪經
釋門喪儀抄	釋門喪儀抄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十王生
禪宗唯心訣	禪宗唯心訣	大方廣佛華嚴經疏鈔	華嚴經
景德傳燈錄	傳燈錄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恩重經/父母恩重經
妙法蓮華經	法華經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齋儀纂要/冥陽纂要儀/水陸齋儀/中禮文
圓頓成佛論	成佛論/圓頓論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大乘莊嚴經
舍利靈應記	靈應記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文/預修集/預修儀文
禪門拈頌集	拈頌/禪門拈頌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西中東佛祖源流
禪宗永嘉集	永嘉集/永嘉集說誼	詳校正本慈悲道場儀法	慈悲儀法
誠初心學人文	初心文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修心訣
賢首諸乘法數	法數/諸乘法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圓覺經/圓覺經
七衆受戒儀軌	七戒儀/受戒儀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起信論/筆削記/大乘起信疏記
維摩詰所說經	維摩經	中峯和尚三時繫念儀範文	三時繫念/三時繫文
禪門拈頌說話	說話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節要/別行記/私記
大乘起信論疏	疏本起信論/起信論疏/起信論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	藥師七佛經
佛祖歷代通載	佛祖通載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助顯錄
佛說大目連經	目連經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濟衆甘露
記信本末五重	五重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普門品
高峰和尚禪要	禪要/高峰禪要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陀羅尼經/佛頂心經/佛頂心陀羅尼經
佛說阿彌陀經	阿彌陀經/彌陀經	天地冥陽水陸齋儀刪補梵音集	梵音集/水陸儀文
佛說無量壽經	無量壽經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刊定記/金剛疏記
佛說大阿彌陀經	大阿彌陀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陀羅尼經/長壽經
起信論疏筆削記	起信論筆削記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准提經
勸修定慧結社文	定慧結社文/結社文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菩薩藏本	梵網經/梵網菩薩經/梵網經菩薩藏
大慧普覺禪師書	大慧書/書狀/普覺書/普覺藏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光明經
禪源集都序科記	禪源節要科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嚴經/首楞嚴經/大佛頂首楞嚴經/大佛頂如首楞嚴經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원서명	축약	원서명	축약
地藏菩薩本願經	地藏經/地藏本願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行願品/華嚴經行願品/華嚴經普賢行願品
因明入正理論解	因明論	佛說金剛項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	隋求呪/隋求陀羅尼

4.1.2 내용 축약

내용 축약은 음절 축약과 달리 원서명의 음절을 축약하지 않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단어를 채택하여 축약 표기한 것이다.

「觀世音菩薩靈驗略抄」나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여기에 해당된다.

「觀世音菩薩靈驗略抄」의 경우 「千手經」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畫千手」 또는 「畫像千手」라 통칭하고 있으며,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경우 「水陸齋儀」, 「平等齋儀」, 「水陸文」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印法을 도상화하여 이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함축의 단어인 「結手文」으로 불리어진다. 조선시대 책판목록에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축약 표기는 「結手文」이 가장 많다. 특히 왕실발원본의 跋文에도 「結手文」으로 되어 있어 「結手文」이 가장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반영한다.

4.1.3 저자명 축약

저자명 축약의 경우 음절이나 내용의 축약이 아니라 편저자명을 넣어 축약 표기한 것이다. 수록재 관련 의식서 중 「志磐文」과 「仔夔文」이 해당된다. 「志磐文」의 원서명은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이며 「仔夔文」의 원서명은 「天地冥陽水陸儀文」이다. 志磐은 南宋 때의 승려로, 號는 大石이다. 저서에 「宗門尊祖儀」와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가 있다. 仔夔는 금나라의 학승으로 1150년에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저자명 축약 표기의 이유는 내용과 체제가 비슷한 많은 종류의 수록재 관련 문헌을 저자명으로 표기하여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4.2 음절수의 변화

4.2.1 表題⁸⁾

4.2.1.1 10음절 이하 원서명의 표제

10음절 이하의 비교적 짧은 원서명을 가진 문헌 중 5음절 이하의 원서명은 표제를 원서명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한 두 음절을 축약하여 3-4음절로 축약 표기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⁹⁾

6음절의 경우 「佛說無量壽經」-「無量壽經」, 「賢首諸僧法數」-「諸僧法數」, 「佛說阿彌陀經」-「阿彌陀經」, 「七衆受戒儀軌」-「七戒儀」, 「誠初心學人文」-「初心文」, 「佛說阿彌陀經」-「彌陀經」과 같이 3-4음절로 축약된 것이 가장 많다.

7음절의 경우 「大慧普覺禪師書」-「大慧書」, 「大慧普覺禪師書」-「普覺書」, 「普覺藏」, 「勸修定慧結社文」-「結社文」, 「地藏菩薩本願經」-「地藏經」, 「大方廣佛華嚴經」-「華嚴經」, 「華嚴懸談會玄記」-「會玄記」, 「金剛般若波羅經」-「金剛經」과 같이 4음절을 축약하여 3음절로 표기한 경우가 많다. 「大慧普覺禪師書」의 경우 「大慧書」, 「普覺書」, 「普覺藏」의 각기 다른 표기에 3음절로 축약하였다. 8-9음절 또한 3-4음절로 축약된 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목록 중 132종을 추출하였으며, 동일한 문헌의 동일한 表題일 경우 그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9) 4음절: 諸眞言集 ⇨ 眞言集(3), 日用作法 ⇨ 日用集(3), 釋門喪儀 ⇨ 釋門儀(3), 緇門警訓 ⇨ 緇門(2), 藏乘法數 ⇨ 法數(2)

5음절: 僧家禮儀文 ⇨ 僧家禮(3), 雲水壇歌訶 ⇨ 雲水文(3), 雲水壇歌訶 ⇨ 雲水壇(3), 雲水壇歌訶 ⇨ 雲水集(3), 現行西方經 ⇨ 現行經(3), 密教開刊集 ⇨ 密教集(3), 景德傳燈錄 ⇨ 傳燈錄(3), 妙法蓮華經 ⇨ 法華經(3), 圓頓成佛論 ⇨ 成佛論(3), 圓頓成佛論 ⇨ 圓頓論(3), 舍利靈應記 ⇨ 靈應記(3), 禪門拈頌集 ⇨ 拈頌(2).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표 3> 6-10음절 원서명의 표제

음절수/원서명	표제(음절수)	음절수/원서명	표제(음절수)		
6	大乘起信論疏	疏本起信論(5)	8	禪門祖師禮懺儀文	禪門祖師禮懺文(7)
	佛說無量壽經	無量壽經(4)		六祖大師法寶壇經	六祖法寶壇經(6)
	賢首諸乘法數	諸乘法數(4)		天地冥陽水陸儀文	仔夔刪補文(5)
	佛說阿彌陀經	阿彌陀經(4)		蒙山和尚六道普說	六道普說(4)
	佛祖歷代通載	佛祖通載(4)		佛說阿彌陀經要解	阿彌陀經(4)
	大乘起信論疏	起信論疏(4)		六祖大師法寶壇經	法寶壇經(4)
	高峰和尚禪要	高峰禪要(4)		禪門祖師禮懺儀文	祖師禮懺(4)
	七衆受戒儀軌	受戒儀(3)		天地冥陽水陸雜文	水陸雜文(4)
	七衆受戒儀軌	七戒儀(3)		蒙山和尚法語略錄	法語解(3)
	維摩詰所說經	維摩經(3)		楞伽阿跋多羅寶經	楞伽經(3)
	誠初心學人文	初心文(3)		佛說阿彌陀經要解	彌陀經(3)
	佛說大目連經	目連經(3)		禮念彌陀道場懺法	彌陀懺(3)
	大乘起信論疏	起信論(3)		天地冥陽水陸儀文	仔夔文(3)
	佛說阿彌陀經	彌陀經(3)		天地冥陽水陸儀文	仔夔(2)
高峰和尚禪要	禪要(2)	六祖大師法寶壇經	壇經(2)		
記信本末五重	五重(2)	9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天地八陽神呪經(7)	
禪門拈頌說話	說話(2)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父母恩重經(5)	
賢首諸乘法數	法數(2)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天地八陽經(5)	
7	禪源集都序科記	禪源節要科記(6)	9	觀世音菩薩靈驗略抄	畫像千手(4)
	起信論疏筆削記	起信論筆削記(6)		觀世音菩薩靈驗略抄	畫千手(3)
	地藏菩薩本願經	地藏本願經(5)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八陽經(3)
	勸修定慧結社文	定慧結社文(5)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十王生(3)	
	佛說大阿彌陀經	大阿彌陀經(5)	大方廣佛華嚴經疏鈔	華嚴經(3)	
	釋迦如來行跡頌	如來行跡(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恩重經(3)	
	大慧普覺禪師書	大慧書(3)	10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西中東佛祖源流(7)
	大慧普覺禪師書	普覺書(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冥陽纂要儀(5)
	大慧普覺禪師書	普覺藏(3)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大乘莊嚴經(5)
	勸修定慧結社文	結社文(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儀文(4)
	地藏菩薩本願經	地藏經(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慈悲懺法(4)
	因明入正理論解	因明論(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齋儀纂要(4)
	大方廣佛華嚴經	華嚴經(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水陸齋儀(4)
	華嚴懸談會玄記	會玄記(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水陸齋儀(4)
	金剛般若波羅經	金剛經(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平等齋儀(4)
	華嚴懸談會玄記	玄記(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結手文(3)
	禪源諸詮集都序	都序(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水陸文(3)	
大慧普覺禪師書	書狀(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中禮文(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集(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文(3)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修心訣(3)		

4.2.1.2 11음절 이상 원서명의 표제

11음절 이상의 비교적 긴 음절의 원서명을 가진 경우에도 3-4음절로 축약 표기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11음절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大圓覺經」,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別行私記」,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筆削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圓覺經」, 12음절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助顯錄」,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志磬文」, 「水陸文」, 13음절의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濟衆甘露」,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陀羅尼經」, 「佛頂心經」 등으로 축약 표기되었다.

20음절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大佛頂如首楞嚴經」, 「大佛頂首楞嚴經」, 「首楞嚴經」, 「楞嚴經」 등으로,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은 「華嚴經普賢行願品」, 「華嚴經行願品」, 「行願品」 등으로 축약 표기되었다.

<표 4> 11음절 이상 원서명의 표제

음절수/원서명		표제/음절수	음절수/원서명		표제/음절수
11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大乘起信疏記(6)	14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陀羅尼經(6)
	中峯和尚三時繫念儀範文	三時繫念(4)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金剛疏記(4)
	中峯和尚三時繫念儀範文	三時繫念(4)		天地冥陽水陸齋儀刪補梵音集	水陸儀文(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圓覺經(4)		天地冥陽水陸齋儀刪補梵音集	梵音集(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別行私記(4)		天地冥陽水陸齋儀刪補梵音集	魚山集(3)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起信論(3)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經(3)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筆削記(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刊定記(3)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經(3)	15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准提經(3)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節要(2)	17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梵網經菩薩戒(6)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私記(2)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梵網菩薩經(5)
12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	藥師七佛經(5)	19	佛說大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梵網經(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助顯錄(3)		佛說大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光明經(3)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음절수/원서명		표제/음절수	음절수/원서명		표제/음절수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志磐文(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佛頂如首楞嚴經(8)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水陸文(3)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華嚴經普賢行願品(8)
13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陀羅尼經(7)	2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佛頂首楞嚴經(7)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濟衆甘露(4)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華嚴經行願品(6)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陀羅尼經(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首楞嚴經(4)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經(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嚴經(3)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普門品(3)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行願品(3)
					佛說金剛項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
			佛說金剛項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	隋求呪(3)	

이상의 132건 중 축약 표기된 표제의 음절을 살펴보면, 2음절 14종(10.6%), 3음절 63종(47.7%), 4음절 29종(22%), 5음절 12종(9.1%), 6음절 7종(5.3%), 7음절 5종(3.8%), 8음절 2종(1.5%)으로 나타났다.

이 중 표제를 3-4음절로 축약하여 표기한 경우가 92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비교적 긴 원서명을 가진 문헌의 경우에도 3-4음절로 축약된 표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제의 서명 축약 표기는 문헌상으로는 구술 기록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표기한 형태도 있겠으나 裝幀할 당시 서명의 표기자가 음절 중 중요한 음절을 추출하여 3-4음절로 축약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표지 서명을 3-4음절로 가장 많이 축약하는 이유로는 시각적인 효율성과 표기자의 편의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긴 음절의 서명을 표기하거나 부르기 3-4음절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인식되어 통용되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축약된 표제의 음절수와 비율

원서명 음절수	표제 음절수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7음절	8음절	합
4음절	2	3	-	-	-	-	-	5
5음절	1	11	-	-	-	-	-	12
6음절	4	7	6	1	-	-	-	18
7음절	3	9	1	3	2	-	-	18
8음절	2	5	5	1	1	1	-	15
9음절	-	5	1	2	-	1	-	9
10음절	-	6	6	2	-	1	-	15
11음절	2	3	4	-	1	-	-	10
12음절	-	3	-	1	-	-	-	4
13음절	-	1	3	-	-	1	-	5
14음절	-	4	2	-	1	-	-	7
15음절	-	1	-	-	-	-	-	1
17음절	-	1	-	1	1	-	-	3
19음절	-	1	-	-	-	-	-	1
20음절	-	2	1	-	1	1	2	7
27음절	-	1	-	1	-	-	-	2
합(%)	14(10.6)	63(47.7)	29(22)	12(9.1)	7(5.3)	5(3.8)	2(1.5)	132

4.2.2 版心題¹⁰⁾

관심제는 표제의 서명 축약보다 더욱 간단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그 중에는 <표 6>과 같이 『禪家龜鑑』-‘龜’, 『緇門警訓』-‘緇’, 『禪宗唯心訣』-‘訣’, 『妙法蓮華經』-‘法’, 『僧家禮儀文』-‘僧’, 『大慧普覺禪師書』-‘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結’ 등과 같이 긴 음절을 축약하여 1음절 내지는 2음절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10) 목록 중 104종을 추출하였으며, 동일한 문헌의 동일한 表題일 경우 그 중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표 6> 10음절 이하 원서명의 판심제

음절수/원서명		판심제/음절수		음절수/원서명		판심제/음절수	
4 (11)	作法龜鑑	作法龜鑑	4	7 (15)	華嚴懸談會文記	華嚴會文記	5
	日用作法	日用集	3		禪源諸詮集都序	禪源諸詮集	5
	諸眞言集	眞言集	3		佛說大阿彌陀經	阿彌陀經	4
	釋門喪儀	釋門儀	3		釋迦如來行跡頌	如來行跡	4
	藏乘法數	法數	2		起信論疏筆削記	筆削記	3
	施食儀文	施文	2		地藏菩薩本願經	地藏經	3
	禪家龜鑑	龜鑑	2		因明入正理論解	因明論	3
	緇門警訓	緇門	2		大方廣佛華嚴經	華嚴經	3
	緇門警訓	警訓	2		華嚴懸談會文記	會文記	3
	禪家龜鑑	龜	1		金剛般若波羅經	金剛經	3
5 (17)	緇門警訓	緇	1	禪源集都序科記	禪源	2	
	現行西方經	現行儀	3	禪源集都序科記	法集	2	
	刪補梵音集	梵音集	3	禪源諸詮集都序	都序	2	
	釋門喪儀抄	喪儀抄	3	勸修定慧結社文	文	1	
	景德傳燈錄	傳燈錄	3	大慧普覺禪師書	書	1	
	妙法蓮華經	法華經	3	天地冥陽水陸雜文	水陸雜文	4	
	舍利靈應記	靈應記	3	佛說阿彌陀經要解	阿彌要解	4	
	禪宗永嘉集	永嘉集	3	六祖大師法寶壇經	法寶壇經	4	
	禪門拈頌集	拈頌	2	楞伽阿跋多羅寶經	楞伽經	3	
	密教開刊集	密教	2	蒙山和尙法語略錄	法語解	3	
	妙法蓮華經	法華	2	佛說阿彌陀經要解	彌陀經	3	
	妙法蓮華經	妙法	2	禮念彌陀道場懺法	彌陀懺	3	
	雲水壇歌詞	雲水	2	禪門祖師禮懺儀文	祖師文	3	
	圓頓成佛論	圓論	2	蒙山和尙法語略錄	法語	2	
	禪宗唯心訣	訣	1	六祖大師法寶壇經	壇經	2	
	妙法蓮華經	法	1	蒙山和尙六道普說	普	1	
	6 (14)	圓頓成佛論	論	1	9 (5)	大方廣佛華嚴經疏鈔	華嚴疏鈔
僧家禮儀文		僧	1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八陽經	3
維摩詰所說經		維摩詰經直疏	6	佛說預修十王生七經		十王生	3
佛祖歷代通載		佛祖通載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恩重經	3
佛說阿彌陀經		阿彌陀經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恩	1
佛說無量壽經		無量壽經	4	10 (10)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佛祖源流	4
七衆受戒儀軌		受戒儀	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慈悲懺	3
大乘起信論疏		起信論	3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莊嚴經	3
佛說大目連經		目連經	3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文	3
禪門拈頌說話		說話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結手	
禪門拈頌說話		拈頌	2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修心	2
記信本末五重		五重	2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	1
誠初心學人文		初	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中	1
賢首諸乘法數		法	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結	1
高峰和尙禪要	要	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手	1	
佛說阿彌陀經	陀	1					

11음절 이상의 원서명을 가진 경우에도 축약된 관심제의 음절수는 모두 4음절 이하로 축약되어 있으며, 그 중 3음절이 가장 많다.

<표 7> 11음절 이상 원서명의 관심제

음절수(중)	원서명	관심제(음절수)
11음절(4)	中峯和尚三時繫念儀範文	三時繫念(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經(3)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私記(2)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論(1)
12음절(2)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	藥師經(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助顯錄(3)
13음절(3)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濟衆甘露(4)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經(4)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妙普(2)
14음절(3)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刊定記(3)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經(3)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1)
15음절(1)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准提經(3)
17음절(1)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梵網經(3)
19음절(1)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光明經(3)
20음절(4)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嚴經(3)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嚴(2)
	大方廣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華行(2)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1)
27음절(1)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	隋求(2)

이를 비율적으로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원서명의 장단에 관계없이 관심제의 경우 4음절 이하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조사된 문헌 중 약 97% 가량이 4음절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 관심제가 5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3%에 불과하다.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표 8> 판심제의 음절수와 비율

원서명 음절수	판심제 음절수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합
4음절	2	5	3	1	-	-	11
5음절	4	6	7	-	-	-	17
6음절	4	3	3	3	-	1	14
7음절	2	3	6	2	2	-	15
8음절	1	2	5	3	-	-	11
9음절	1	-	3	1	-	-	5
10음절	4	2	3	1	-	-	7
11음절	1	1	1	1	-	-	4
12음절	-	-	2	-	-	-	2
13음절	-	1	-	2	-	-	3
14음절	1	-	2	-	-	-	3
15음절	-	-	1	-	-	-	1
17음절	-	-	1	-	-	-	1
19음절	-	-	1	-	-	-	1
20음절	1	2	1	-	-	-	4
27음절	-	1	-	-	-	-	1
합(%)	21(20.4%)	26(25.2%)	39(37.9%)	14(13.6%)	2(1.9%)	1(1%)	103

판심제의 축약표기와 표제의 축약 표기의 음절수를 비교해보면, <표 9>와 같이 표제는 조사된 자료 중 1음절을 가진 것이 없고, 2음절이 10% 정도로 나타났다. 판심제는 1음절이 약 20%이고, 1-2음절을 포함하면 약 45%를 상회한다. 또한 표제는 5음절 이상이 약 20% 가량 있는 반면 판심제는 3%만 있을 뿐이다. 이렇듯 표제보다 판심제가 원서명에서 음절이 더 축약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표제는 표지의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지 않는 반면에 판심제는 좁은 판심부분에 기록해야 하므로 공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표 9> 표제와 판심제의 음절수 비율 비교

음절수	1	2	3	4	5	6	7	8
표제	-	10.1%	45.6%	24%	10.1%	5.1%	3.6%	1.4%
판심제	20.4%	25.2%	37.9%	13.6%	1.9%	1%	-	-

불교 문헌의 관심제는 ‘龜’, ‘緇’, ‘訣’, ‘法’과 같이 1-2음절로 축약 표기된 것이 많아 만약 卷首題가 결락·훼손되어 서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관심제만으로는 원서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동일한 한자의 1음절의 관심제는 동일한 문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문헌에 중복되어 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심제의 ‘法’은 『妙法蓮華經』에 주로 표기되나 『賢首諸乘法數』에도 나타나며, 관심제의 ‘論’은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과 『圓頓成佛論』에 쓰이기도 하였다.

5. 結 言

본고에서는 불교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서명의 축약 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책판목록과 현전 고문헌의 표제와 관심제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찰되었다.

1. 불교 문헌의 서명 축약 방법은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음절 축약은 원서명의 음절 일부를 생략(혹은 추출)하여 축약 표기한 것으로, 가장 흔한 축약표기의 방법이다. 불교문헌 중 대부분은 음절 축약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용 축약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단어로 축약 표기한 것으로, 『畫千手』, 『結手文』이 대표적이다.

저자 축약은 편저자의 성명이나, 자호를 넣어 축약 표기한 것으로, 특히 수록재 관련 의식서 중 ‘志磐文’, ‘仔夔文’이 해당된다. 이러한 저자명 축약 표기의 이유는 내용과 체제가 비슷한 많은 종류의 수록재 관련 문헌을 저자명으로 표기하여 쉽게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2. 축약 표기된 표제의 음절을 살펴보면, 표제를 3-4음절로 축약하여 표기한 경우가 가장 많은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비교적 긴 원서명을 가진 문헌의 경우에도 3-4음절로 축약된 표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3. 관심제의 서명 축약은 표제보다 더욱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다.

원서명의 長短에 관계없이 관심제의 경우 4음절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조사된 문헌 중 약 97%이다.

표제보다 관심제의 음절이 더 축약되는 이유는 공간적인 제약을 표제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불교문헌의 관심제는 1-2음절로 축약 표기된 것이 많아 관심제만으로는 원서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다른 문헌과 1음절의 관심제가 같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불교문헌 중 일부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서명의 축약 표기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향후 광범위한 불교문헌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문헌을 통한 서명의 축약표기에 대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제시한 불교문헌의 축약된 표제나 관심제는 내용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서지조사에서 원서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선. “『高峰和尚禪要』 판본고.” 『書誌學研究』 第14輯(1997).
- 東國大學校 圖書館. 『東國大學校 建學100週年記念 古書目錄』. 서울: 東國大, 2006.
- 禹秦雄. “朝鮮時代 妙香山 普賢寺 刊行 版本考.” 『書誌學研究』 51輯(2012. 6). 193.
- 尹炳泰, 鄭亨愚.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 北京: 中華書局, 2004.
- 한보광. 『中國歷代佛敎人名辭典』. 서울: 이회문화사, 2011.

[부록 1] 동일한 서명의 다양한 축약 표기

原書名	縮約 表記
高峰和尚禪要	高峰禪要, 禪要
觀世音菩薩靈驗略抄	畫千手, 畫像千手
勸修定慧結社文	結社文, 定慧結社文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金剛疏記, 刊定記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脫境界普賢行願品	華嚴經普賢行願品, 行願品, 華嚴經行願品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圓覺經, 圓覺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大佛頂首楞嚴經, 大佛頂如首楞嚴經, 楞嚴經, 首楞嚴經
大乘起信論疏	疏本起信論, 起信論疏, 起信論, 筆削記, 大乘起信疏記
大慧普覺禪師書	大慧書, 書狀, 普覺藏, 普覺書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梵網菩薩經, 梵網經菩薩戒, 梵網經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水陸文, 志誓文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私記, 別行私記, 節要
佛說金剛項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	隋求陀羅尼, 隋求呪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父母恩重經, 恩重經
佛說阿彌陀經	阿彌陀經
佛說阿彌陀經	彌陀經, 彌陀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陀羅尼經, 長壽經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八陽經, 天地八陽經, 天地八陽神呪經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經, 佛頂心陀羅尼經, 陀羅尼經
禪門祖師禮懺儀文	祖師禮懺, 禪門祖師禮懺文
禪宗唯心訣	禪宗唯心訣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平等齋儀, 結手文, 水陸齋儀, 水陸文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集, 預修儀文, 預修文
雲水壇歌訶	雲水集, 雲水壇, 雲水文
圓頓成佛論	成佛論, 圓頓論
六祖大師法寶壇經	壇經, 六祖法寶壇經, 法寶壇經
中峯和尚三時繫念儀範文	三時繫念
地藏菩薩本願經	地藏經, 地藏本願經
天地冥陽水陸儀文	仔變, 仔變刪補文, 仔變文, 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刪補梵音集	梵音集, 魚山集, 水陸儀文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齋儀纂要, 中禮文, 冥陽纂要儀, 水陸齋儀
緇門警訓	緇門, 緇門警訓
七衆受戒儀軌	七戒儀, 受戒儀
賢首諸乘法數	法數, 諸乘法數
華嚴懸談會玄記	玄記, 會玄記

[부록 2] 판심제와 원서명(가나다순)

版心題	原書名
刊定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
訣	禪宗唯心訣
結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結手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警訓	緇門警訓
光明經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
龜	禪家龜鑑
龜鑑	禪家龜鑑
起信論	大乘起信論疏
金剛經	金剛般若波羅經
拈頌	禪門拈頌說話
拈頌	禪門拈頌集
壇經	六祖大師法寶壇經
都序	禪源諸詮集都序
論	大乘起信論疏筆削記會編
論	圓頓成佛論
楞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伽經	楞伽阿跋多羅寶經
楞嚴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楞嚴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目連經	佛說大目連經
妙法	妙法蓮華經
妙普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無量壽經	佛說無量壽經
文	勸修定慧結社文
彌陀經	佛說阿彌陀經要解
彌陀懺	禮念彌陀道場懺法
密教	密教開刊集
梵網經	梵網經盧舍那佛說心地法門品菩薩戒本
梵音集	刪補梵音集
法	妙法蓮華經
法	賢首諸乘法數
法寶壇經	六祖大師法寶壇經
法數	藏乘法數

版心題	原書名
法語	蒙山和尚法語略錄
法語解	蒙山和尚法語略錄
法集	禪源集都序科記
法華	妙法蓮華經
法華經	妙法蓮華經
普	蒙山和尚六道普說
佛頂心經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祖源流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佛祖通載	佛祖歷代通載
私記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三時繫念	中峯和尚三時繫念儀範文
喪儀抄	釋門喪儀抄
書	大慧普覺禪師書
釋門儀	釋門喪儀
禪源	禪源集都序科記
禪源諸詮集	禪源諸詮集都序
說話	禪門拈頌說話
水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受戒儀	七衆受戒儀軌
隋求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
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雜文
修心	高麗國普照禪師修心訣
僧	僧家禮儀文
施文	施食儀文
十王生	佛說預修十王生七經
阿彌要解	佛說阿彌陀經要解
阿彌陀經	佛說大阿彌陀經
阿彌陀經	佛說阿彌陀經
藥師經	藥師瑠璃光七佛本願功德經
如來行跡	釋迦如來行跡頌
永嘉集	禪宗永嘉集
靈應記	舍利靈應記
預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預修文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五重	記信本末五重

책판목록의 불교문헌 서명 축약 표기에 관한 연구

版心題	原書名
要	高峰和尚禪要
雲水	雲水壇歌訶
圓覺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圓論	圓頓成佛論
維摩詰經直疏	維摩詰所說經
恩	佛說大報父母恩重經
恩重徑	佛說大報父母恩重經
因明論	因明入正理論解
日用集	日用作法
慈悲懺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作法龜鑑	作法龜鑑
長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長壽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莊嚴經	佛說大乘無量壽莊嚴經
傳燈錄	景德傳燈錄
濟衆甘露	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
祖師文	禪門祖師禮懺儀文
助顯錄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准提經	佛說七俱胝佛母心大准提陀羅尼經
中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地藏經	地藏菩薩本願經
真言集	諸真言集
初	誠初心學人文
緇	緇門警訓
緇門	緇門警訓
陀	佛說阿彌陀經
八陽經	佛說天地八陽神呪經
筆削記	起信論疏筆削記
現行懺	現行西方經
華嚴經	大方廣佛華嚴經
華嚴疏鈔	大方廣佛華嚴經疏鈔
華嚴會玄記	華嚴懸談會玄記
華行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會玄記	華嚴懸談會玄記

